

# 전남 각지 농수산물 수출입... 호남 제1 상업도시 우뚝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8. 근대 무역도시 목포의 전성시대

日, 남도 수탈 거점지 이용  
도로·전기·수도·학교·은행  
근대시설 광주에 10년 앞서  
인구 급증·산업 발달 가속



1930년대 당시 목포 육어시장의 풍경. 전남 각지의 수산물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몰려들었다가 다시 전국 각지로 빠져나갔다.



조선의 보물창고인 전라도의 최대 생산물인 쌀이 목포항을 통해 일본 본토로 옮겨졌다.



목포는 조선에서 가장 큰 면화 수출입항이었다. 미국 종자인 육지면이 전라도 각지에서 재배되면서 전라도는 전국 최대 면화생산지로 부각됐으며, 목포항 수출입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1914년 호남선 전 구간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 건립된 목포역사 전경.

일제에 의해 남도의 전략적 거점이 된 목포에는 근대건축물, 상하수도, 전기 등이 가장 신속하게 설치돼 갔다. 앞서 설명했듯 개항은 조선정부의 칙령으로, 각 열강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일제의 남도 침략을 인가해주는 꼴이 됐다. 목포의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는 철저히 이 관점이었다. 일본인 거주지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고 '주인'인 한국인 거주지는 방치됐다. 유감스럽게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이 각국공동거류지, 즉 일본인 거주지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 그곳의 '보고'인 남도를 탐내는 일본인들의 진출은 나날이 늘어났고, 그들의 도시는 점차 커져 갔다.

우선 일제가 지은 시설부터 살펴보자. 일제가 목포에 가장 먼저 지은 것은 영사관이다. 1897년 10월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조선정부의 수군시설인 만호창을 잠시 빌려쓰면서 같은 해 11월 15일 우체국 업무를 시작했고, 1898년 2월 영사관 가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1900년 말 지금의 목포문화원 자리인 대의동 2가 1에 정식 영사관을 준공해 이전했다. 목포, 아니 남도 최초의 정식 서양식 건물인 이 영사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산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지점이 한 눈에 보이는 유달산 자락에 위치한 이 영사관 앞 도로가 바로 지금의 국도 1호선, 경성~목포선의 기점이 된다. 또 이 영사관에서 무안으로 가는 도로는 남도 최초의 근대적 시가지로 개발된다.

일본 제일은행 출장소가 개업하고 일본인 자녀를 위한 목포심상고등소학교가 문을 연 것이 1898년 10월로, 광주보다 8~9년 앞선 시점이다. 경찰서는 영사관과 같은 시기 들어섰고, 목욕탕, 당구장, 식당, 유락 등 편의시설도 1905년 이전 이미 목포에 진입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1906년 2월 수도 경성에는 통감부, 개항장이자 중요거점 도시에는 이사청이 설치됐는데, 이는 일제가 지방 침탈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10년 강제합일병합 이후 목포이사청이 폐지되고 같은 해 10월1일 무안부가 목포부로 개칭, 소재지를 목포로 이전했다. 목포부의 관할 구역은 이에 따라 과거 각국거류지뿐만 아니라 18개면으로 잠시 확대됐다가 1914년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목포부와 무안군으로 분리돼 그 면적이 70만3978평 정도로 축소됐다.

같은 해 목포 거류민단이 폐지되고 그 사무 및 재산이 목포부로 이양됐다. 이 때 목포부 인구는 1만2415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7391명, 일본인은 4908명이었다. 인구는 거의 매년 증가해 1925년에는 2만5762명으로 19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를 넘었고,

한국인이 1만8815명, 일본인이 6709명의 비율을 보였다. 1935년의 총인구는 6만734명, 인구증가율 11.20%로 전국 최고였다.

물류의 이동에 관한 통계를 목포부가 1930년에 출간한 목포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29년 목포의 철도여객 이용자 수가 승하차 모두 합쳐 총 40만2003명으로 당시 인구 1인당 14.6차례에 해당하고, 철도화물도 발송 4만3996t, 도착 9만4514t, 합계 13만8510t으로, 인구 1인당 5.03t에 해당하며, 수운에 의한 화물은 출하 24만8615t, 입하 11만8603t, 합계 42만7218t으로 인구 1인당 15.5t에 상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처럼 개항도시 목포는 인구 급증, 산업 발달, 무역 규모 확대 등의 요인으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목포는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유지하는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했다. 목포는 개항 당시부터 다른 개항 도시와 마찬가지로 식수 문제가 대두됐다. 각국 거류지 대부분이 산 또는 구릉지역을 제외하면 매립지였기 때문에 지하수의 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인구 유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907년에서야 통감부 기사가 설치담사를 해서 상수도 설계에 나서 목포각국거류지회 사업으로 1908년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한국정부가 3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서 15만원으로 11월에서야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1910년 5월 준공된 이 공사로 목포는 일본인 거류지 내 급수에정인구 5000명에 게 1일 1인당 3입방척(약 83ℓ)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는 광주(1920년)보다 10년 앞선 것으로, 일본인에게만 수돗물 급수가 한정됐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물론 이 시설도 사용자가 증가하고, 1912년부터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급수가 곤란해졌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각국거류지에 국한됐던 급수지역을 목포부 일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제3수원지 설치, 송수관의 연장, 여과지 및 배수지 등이 시급해지면서 공사에 23만5000원을 투입, 1914년 4월 공사에 들어가 그 다음해인 1915년 10월 준공하게 된다. 이 때 급수에정인구는 1만7000명이었고, 또 제4수원지 및 여과지를 신설하기 위해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13만5000원으로 1927년 1월 공사에 착수해 다음해 3월 준공하는 등 19년간 상수도 관련 공사가 계속됐다.

앞서도 언급했듯 목포는 바다에 벽을 설치한 뒤 갯벌 매립을 통해 항만을 설치했다. 목포거류지규칙 1조는 이 벽 건설 및 유지보수를 한국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목포부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해벽공사를 직접 실현할 수 없자 히사미즈 일본 영사가 일본 의무성을 통해 제일은행과 함께 공사

비차관의 조약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당시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이 강경하게 반대해 몇 차례 절충을 거쳐 차관이 아닌 브라운의 보관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1899년 작성된 목포항의 부두·방파제 축조에 관한 계약서에는 총 공사비 9만4568원이 명시돼 있고, 공사에 관련된 사무는 목포각국거류지회(이하 거류지회)에 위임돼 있었다. 같은 해 6월11일 기공식을 가졌고, 최초에는 공사예정기간이 1년이었지만 1901년 5월에서야 완성된다. 사쿠라마치(현 금화동)의 산도봉이를 시작으로, 남으로 세관 앞, 동쪽 해안을 따라서 송도(현 동명동 언덕) 등에 이르는 1.8km 구간이다.

이러한 해벽공사와 더불어 지금의 목포시가지의 구성하는 도로 공사도 실시됐다. 거류지의 첫 시가계획이었던 스테인의 설계는 해벽공사의 일부 변경, 바닷물 침입 등으로 실행이 어렵게 되자 공사를 담당했던 거류지회가 무단감리서 및 목포해관과 협의해 도로부지를 변경했다. 이 때문에 1905년 일본인 기사 아마우치가 9월부터 11월까지 거류지 전체 설계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시가도로 가운데 처음 건설된 것은 목포대(木浦臺)에서 복산정(현 복산동)을 거쳐 상반정(현 상락동) 방면으로 향하는 간척지의 짧은 구간이었고, 그 다음이 본정동(중앙동 일대)에서 목포부청(현 목포문화원)을 거쳐 남해안으로 향했으며, 영사관동(현 대의동 일대)에 이르는 노선 등이다.

네오바로크 양식, 르네상스 양식, 절충주의적 양식 등 서구적인 근대 건축물들도 1910년대를 전후로 목포시가지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 영사관을 필두로 부산세관 목포지점(1908),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1910), 목포양동교회(1910), 목포정명여학교(19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912), 목포역(1913), 18은행 목포지점(1916), 부림 목포병원(1919) 등이 그것이다.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1920), 조선식산은행 목포지점(1924), 호남은행 목포지점(1925) 등 금융기관이 잇따라 들어서며 무역도시 목포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죽석 서비스포동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풍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맥주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